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헛헛하다

‘헛’ 헛하다는 ‘먹은 것이 없어서 무언가 먹고 싶은 느낌’이 있다. ‘무엇을 읽은 듯하여 끊시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헛헛’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한다.

차가 이동수단이 된지 오래다. 시골길을 걸거나 차로 이동하다보면 사람 그림자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르신의 모습이 하나 둘 보일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어느 골목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나 우렁찬 목소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 고요한 시골의 쓸쓸함이 가득 베어 기분은 다운시킨다. 헛헛하다.

전화가 울린다. “00회 출업생 제0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지만 안부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준비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축하한다.”,

“직장은 서울입니다.

언제 시간 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간간이 전해오는 소식은 꼭 취직이 되거나 세상말로

조금 풀린 아이들이 전화나 메시지



박여범

용복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를 통해 안부를 전해준다. 20년이 넘은 출업생들 중 전화 한 번 없는녀석들이 많다. 헛헛하다.

“오랜 시간 살아온 연구실을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레노베이션하느라 한 학기 좀 다른 연구실에서 보낸 것 말고는, 바로 이 방, 인문관 303호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책 한권마다, 음반 한 장마다. 액자마다, 사연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냥 미구잡이로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문득 잠이 깨어 민PD의 포스팅을 보노라니 오늘 종일토록 헛헛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유영대 교수님이 정년퇴

임을 하시면서 폐복에 남기신 글의 일부이다.)

교무실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 빗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고 어떤 가를 지그시 바라다볼 수 있다. 나를 여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방관으로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거나 생각지도 않는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많다. 참으로 헛헛하다.

독백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삶의 근본은 그 자체가 헛헛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헛헛함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오히려 더 큰 헛헛함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헛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헛헛함이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그것의 부기는 얼마일까?

등 생각이 많은 시간이다.

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전처럼 엄하게 지도할 수도 없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헛헛하다.

인생이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신입이라고, 절차라고 절대로 일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인간적인 정이 담으로 와야 하는 것이인지 상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방관으로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거나 생각지도 않는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많다. 참으로 헛헛하다.

독백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삶의 근본은 그 자체가 헛헛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헛헛함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오히려 더 큰 헛헛함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헛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헛헛함이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그것의 부기는 얼마일까?

등 생각이 많은 시간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라질 대법원 향해 행진하는 원주민 시위대



1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원주민 시위대가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 반대 현수막을 들고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법원 앞에서 이미존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법안에 반대하며 그들의 토지 권리와 보호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업자들이 원주민 동의 없이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원주민들은 연일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항 다짐하는 아프간 반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 반(反) 탈레반 전사가 1일(현지시간) 편지시로주 아나바 지역 언덕 꼭대기에서 소총을 겨누고 있다. 탈레반 고위 지도자 모울비 아미르 칸 무타카는 편지시로 지방의 교착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아프간의 평화와 안보를 인정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편지시로는 탈레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프간 내 유일한 주다.

사설

농산어촌과 도심 학교 상생 해법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이 최근 “합리적으로 작은 학교를 통합하고 도심 학교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농산어촌 지역에는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반대로 도시 지역에는 과대 학교가 많아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대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지역 769개 초·중·고 학교 중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296개로 전체의 38.49%를 차지했다. 이중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가 31곳이며, 11~20명 65개교, 21~30명 72개교다.

작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축제나 영어·체육 수업 등 교육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도시의 과대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난다.

서거석 이사장은 합리적 학교 통합 방식으로 ▲작은 학교에 대체 학교를 통합하고, 도시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수성, 요건 등을 고려하기 바란다.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유튜브 인력 양성

유튜브는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튜브는 2005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유튜브는 Broadcast Yourself!(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2006년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지식,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유튜브를 최고 랭킹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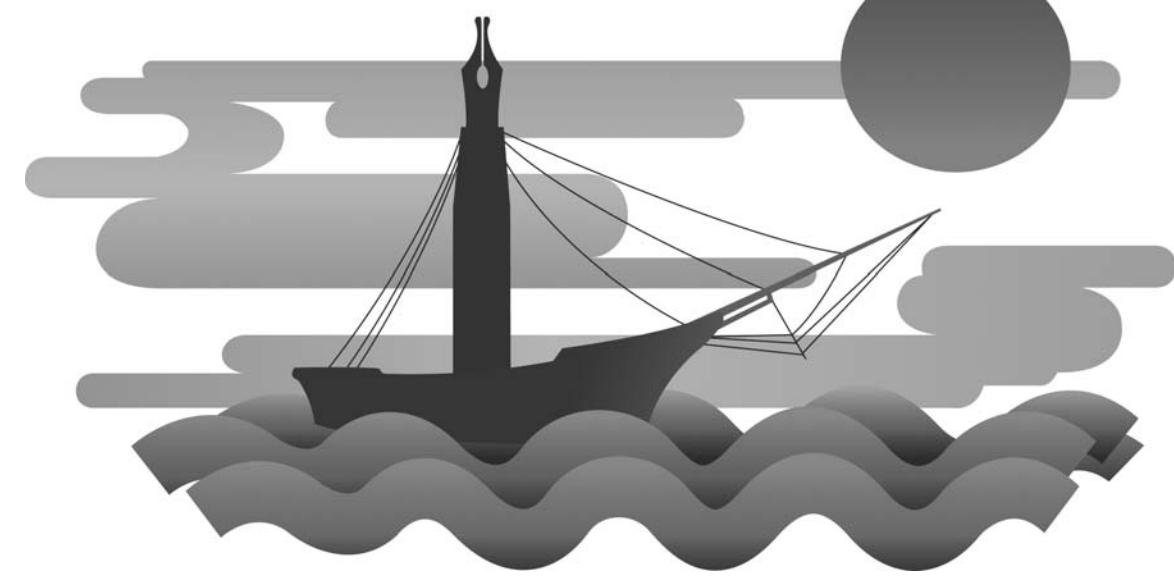
타임은 유튜브가 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편집할 수 있도록 한 것, 웹2.0의 혁명, 톰타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킬 것 등 3 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요즘 홍보·마케팅 플랫폼 대세는 단연 유튜브다. 언택트 시대에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구직자들이 앞으로 유튜브 활용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에 성과를 내기 바란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